

# 제3지대 신당 출항... '도로호남당' 넘어야 중도 잡는다

### 이번주 통합 절차 마무리...DJ 정통성 계승·현역 프리미엄 장점

### "상당수 여권 후보에 위협적...호남 이외 지역서는 힘 못쓸 것"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등 호남을 지지기반으로 하는 3당이 24일 합당을 의결하는 등 이번주 통합 마무리 절차에 돌입한다. 대부분 호남을 지역 기반으로 하는 이들 3당의 통합이 성공함에 따라 이번 4·15 총선에서 호남 지역은 더불어민주당과의 호남 기반 통합신당의 맞대결로 펼쳐질 전망이다.

이들 3당은 바른미래당에서 안철수계 의원들을 제외하더라도 20여석에 달할 전망이다. 원내 3당이 교섭단체 지위로 총선을 치르게 된다.

호남계 3당은 이번 총선에서 호남 민심을 향해 민주당 1당 싸움을 이겨 지역발전 역효과라는 프레임에 내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호남계 3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통성을 계승한다는 이미

지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선 합의에 따라 각 당 대표들은 이날 모두 물러나고 새로운 임시지도부를 구성한다.

합당 관련 전권을 위임받은 인사들이 참여하는 수입기구 합동회의에서 합당을 의결한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등록을 마치면 합당 절차는 마무리된다.

이들 3당은 바른미래당에서 안철수계 의원들을 제외하더라도 20여석에 달할 전망이다. 원내 3당이 교섭단체 지위로 총선을 치르게 된다.

호남계 3당은 이번 총선에서 호남 민심을 향해 민주당 1당 싸움을 이겨 지역발전 역효과라는 프레임에 내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호남계 3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통성을 계승한다는 이미

지가 가장 큰 강점으로 꼽힌다. 그런 면에서 호남 민심에 호소하기에는 여당보다 유리한 입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통합에 따른 컨디션 효과에 더해 호남계 약 20명 의원이 민주당 후보와 1대1 매치가 성사되면 승산이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지역구 의원 대부분이 호남 현역인 점도 강점이다.

신울명지대 교수는 "제가 아는 한 도 내에서는 지금 호남지역에서 무소속이라든지 호남계 3당쪽에서 뛰는 사람들이 상당수 여권의 후보를 누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거대 정당의 싸움을 벗어나 제3지대 세력의 등장에 기대를 거는 표심이 움직일 것이라 분석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



중도개혁 신당 통합을 추진하는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과 대안신당·민주평화당 의원들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합의원총회에서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교수는 "지지하든 안하든 제3지대가 구축되고 안철수계가 소멸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제3지대 정치에 희망을 거는 사람들은 그쪽 정당(호남계 3당)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정치권이 지역주의 청산을 외치는 가운데 등장할 '도로 호남당'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신 교수는 "4+1(협의체)라는 이

름으로 임의 단체 속에서 거의 유사 여당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데아에 여당으로 들어갔어야 맞다고 본다"며 "(호남계 3당은) 전라도 이외의 지역에는 힘을 못쓸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교수는 "인적혁신 없이 호남 정당으로 가버리면 중도 정당이 될 수 없다"며 "호남정당 색깔을 뺄 수 있으면 빼는 것이 (선거에 유

리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호남계 통합신당의 도전을 앞둔 민주당은 아직까지는 큰 위협이 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특정 지역에서 의석을 얻기 위해 선거를 앞두고 이합집산하는 세력이 다시 등장하면 지역 민심의 혼란을 심판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홍문종 '친박신당' 창당

### 박근혜 메시지 전달할까

### 불출마 TK 의원 일부 참여할 듯

홍문종 무소속 의원이 25일 '친박신당'을 창당한다.

홍 의원은 이날 창당대회를 연 뒤 유영하 변호사와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갈 계획이다. 3년 가까이 구속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이 메시지를 전달할지 주목된다.

홍 의원은 22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신당 창당과 관련해 "지금의 미래통합당 공천 심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거기에 구정물을 뿌리는 느낌을 주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25일로 예정된 '친박신당' 창당 대회에는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대구·경북(TK) 의원 일부가 참여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방문할 구체적 계획에 대해선 "물밑으로 얘기를 나누고 있다"며 "(방문을) 하고 나서 말씀드리는 게 순서가 아닐까 싶다"고 즉답을 피했다.

뉴스1

## 홍준표 '양산대전' 자체 선언

### "문재인 정권 성지서 승리"

당으로부터 '서울 합지' 출마를 요청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경남 양산을 출마를 공식화했다. 당에서는 아직 홍 전 대표의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홍 전 대표는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경남 양산에서 이번 총선의 핫플레이스로 부상한 PK(부산·울산·경남) 양산 대전을 준비하겠다"며 "전후방에서 나라의 명운을 걸고 벌어지는 이번 총선에서 PK 40석을 철통같이 방어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 전 대표는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방침에 순응해 고향 지역구인 밀양 선거사무소의 문을 닫고 밀양 예비후보도 반납한다"며 "경남 협지인 양산에 선거 사무실을 새롭게 열고 예비후보 등록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홍 전 대표는 전남(22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 'TV홍카콜라'를 통해 발표한 '출마의 변'에서도 "양산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으로 알려졌지만 이번에 제가 가서 통합당의 텃밭으로 바뀔 것"이라며 "PK 대전에서 40석 의석을 확보하는 쾌거를 목표로 총선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홍 전 대표는 "25년 정치 인생을 마무리짓는 이번 총선 출마지 제가 태어난 창녕이 포함된 밀양·창녕·함안·의령 지역에 출마하고자 이사까지 내려가 준비했지만 김형오 공관위원장께서 밀양까지 내려오셔서 '고향 출마는 안 된다'고 했다"며 "곰곰이 생각한 끝에 문재인 정권의 성지인 양산으로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민주당 후보들 운명의 한주...광주·전남 6곳 경선 레이스

### 26~28일 광주 동남을·북갑·북을 진행

### 해남완도진도·목포·여수 27~29일

### "여당 텃밭서 경선 이기면 사실상 선거 끝"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자들이 속속 확정되는 가운데 오는 24일부터 본격 경선이 실시돼 후보들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23일 현재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광주·전남 18개 선거구 중 14곳의 예비후보들에 대한 공천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광주는 전체 8곳 가운데 추가 공모를 진행중인 서구갑을 제외한 7곳의 경선이 예정돼 있다. 10개 선거구가 포진된 전남은 여수갑, 순천, 광양·곡성·구례 선거구를 제외한 6곳의 경선이 진행되며, 담양·함평·영광·장성 등 이개호 의원이 단수 후보자로 확정됐다.

민주당 총선 후보자들의 본격적

인 경선은 오는 24일부터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24~26일 전국 30곳에서 치러질 1차 등록공고 경선지역은 전국 30곳으로 광주·전남은 해당 지역이 없다.

2차 등록지역의 경선일은 26일부터 28일까지며 전국 14곳 가운데 광주는 동남을, 북구갑, 북구을에서 경선이 펼쳐진다.

하루 늦은 27일부터 3일간 치러질 3차 경선 등록 지역은 전남의 해남·완도·진도·목포시, 여수시 등 3곳을 포함 전국 13개 선거구가 대상이다.

앞서 경선확정 후보들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신청서, 서약서, 후보자 대리인 위임장, ARS 투표용 경력 신청서 및 경력증명

서류, 경선 참관인 신청서, ARS 투표 참관위임장, 기탁금 납입증 등의 등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경선 기탁금은 2인 경선의 경우 1인당 2200만원, 3인 경선은 1인당 1500만원이다.


민주당 경선은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유권자 여론조사(안심번호 선거인단) 50%를 합산하는 방식이다.

경선 결과가 나오면 중앙당 선관위는 최고위에 보고하고 당부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후보자가 최종 확정된다.

특히 당내 경선이 곧 본선인 광주·전남의 민주당 후보들은 경선 승리를 위해 조직을 풀가동하고 매일 대책마련과 점검회의를 개최하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여당의 텃밭인 광주전남에서는 경선에서 이기면 사실상 선거가 끝난다는 인식하에 후보들이 치열하고 경선을 준비하고 있다"며 "금배지를 달기 위한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됐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강아라 기자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 062) 971-7400

광고 직통 224-5800

팩 스 222-5547

호남신문 공익 캠페인

# " 딱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입니다 "



한 잔만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전날 파음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사람은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야 할 수 있도록  
다함께 약속해주세요